

욕망의 소설교육적 의미 탐구

유 리 (한양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욕망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의
의의 |
| 2. 욕망과 소설 | |
| 3. 소설에서의 욕망 : 「꿈꾸는 인큐
베이터」를 중심으로 |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욕망의 소설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라캉과 지라르의 욕망 이론을 중심으로 소설에서 욕망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핀다. 라캉은 욕망을 억제할 무엇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라르는 욕망의 중개자를 통한 모방의 과정으로 욕망을 설명한다. 근대 이전 욕망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욕망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배경이 현실과 유사한 장르인 소설을 통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욕망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양상을 타자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욕망으로 나누고,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소설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공감을 통한 욕망에 대한 재인식과 공감에서 벗어난 욕망의 분리와 재설정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소설에 나타난 욕망을 객관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욕망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을 거치고,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분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욕망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욕망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소설교육에서 욕망의 교육적 의미가 밝혀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욕망, 소설교육, 타자, 욕망의 재인식, 모방된 욕망

1. 서론

인간은 욕망을 지니고 살아간다. 경우에 따라 욕망은 절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욕망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길 수만은 없다. 이러한 욕망은 근대 이전까지 합리적 사고의 방해 요인으로 평가되어 절제하고, 금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동양과 서양의 종교나 철학에서는 금욕, 혹은 수양의 태도를 중시했다. 이렇듯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욕망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욕망은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욕망이 우리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욕망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여러 양상으로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이러한 소설의 상황에서 인물이 가지는 욕망의 근원을 알고, 자신과 타인의 욕망을 살펴보는 것은 소설의 이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욕망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의 목표인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설교육을 통하여 인물의 욕망을 파악하는 활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금까지의 욕망 이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인간의 욕망을 욕망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¹⁾와 욕망 이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밝힌 연구²⁾, 욕망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한 연구³⁾로 나뉜다.

욕망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한 연구는 대개 인간 욕망의 특성을 분석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재고를 바탕으로 한 특정 관점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욕망 이론의 교육학적인 함의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욕망 이론의 단계나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자아와 주체 형성 등과 관련한 학습자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관련된 혹은 욕망 이론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폭넓은 작품들을 인물의 욕망, 그리고 욕망 이론의 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작품

-
- 1) 김석,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철학과 현상학연구』 29, 한국현상학회, 2006, 김성민, 「인간의 욕망과 모방-르네 지라르의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47, 한국실천신학회, 2015,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 이론과 새로운 심리학」, 『불어불문학연구』 107, 한국불어불문학회, 2016, 이동성, 「라캉의 구조주의 욕망이론」, 『동서언론』 9, 동서언론연구소, 2005 등.
 - 2) 마상룡, 신창호,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인격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자아와 주체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5, 한국인격교육학회, 2011, 진상덕, 「인간의 주체화 과정과 욕망-라캉의 정신분석적 교육철학 탐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진상덕, 노상우,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욕망의 교육학적 함의」, 『교육철학』 37, 한국교육철학회, 2015 등.
 - 3)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박청호, 「욕망의 서사 연구-김승옥, 신경숙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오현중, 「조세희 소설의 욕망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한순미, 「최명익 소설의 주체, 타자, 욕망에 관한 연구-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등.

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밝히고 있다.

욕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욕망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다양하게 정리된 욕망 이론에서 교육적인 함의를 밝혀 욕망과 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작품의 구조 속에서 욕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시에 작품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여 욕망에 대한 연구와 작품 연구 모두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욕망 이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욕망 이론이 가지는 교육학적이고 철학적인 광범위한 함의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세부적인 교과와 교육의 측면이나 교육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욕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제까지의 소설교육은 작품을 제재로 하여 소설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작품에 초점을 두어 작품 자체에 대한 교육에 몰두해서는 소설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작품을 감상하며 학습자의 삶과의 밀접한 영향 관계 속에서 소설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습자의 삶에 있어 유의미한 소설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소설교육의 측면에서 욕망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이를 통한 교육이 학습자의 성장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욕망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욕망, 모방의 양상으로서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욕망과 소설

인간은 욕망으로 인하여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욕망은 주체의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은 인물들의 욕망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설에는 인물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거나, 타자의 욕망과 충돌하는 상황이 잘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바라본 라캉의 욕망 이론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라르가 바라 본 욕망의 관점을 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라캉의 욕망과 소설

자크 라캉은 주지하다시피 상상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를 나누어 그의 욕망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거울 단계인 상상계에서 6개월 이후의 어린 아이들은 거울 속의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그 완전한 이미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유아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과 동일하다고 믿는다. 이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 행위는 18개월 때까지 지속된다. 여기에서 수반되는 쾌락은 거울 단계가 끝나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거울 단계가 끝나는 순간을 라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거울 단계가 끝나는 바로 이 순간에 거울 속의 ‘나’를 사회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는 변증법이 시작된다. 변증법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의 동일시 또는 원초적인 질투가 별이는 극적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 바로 이 순간에 인간의 모든 지식은 타자의 욕망을 통해 결정적으로 병합되며, 또 타자와의 협력에 의한 추상적 등가물 속에서 자신의 대상을 구하게 된다. 주체가 모든 본능적 자극에 대응하는 장치로 바뀌는 것도 바로 이 순간이다. 거울 단계가 끝나는 순간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간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지만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이 문화적 중재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⁴⁾

거울 단계에서의 쾌감은 불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욕망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은 자연

4) 자크 라캉, 민승기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5, 45~46면.

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욕망은 사회 구조에 편입되어 억압 받게 됨으로써 언제나 완전하게 충족 될 수 없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는 일정 정도의 결여를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여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를 욕망하게 된다.⁵⁾ 어머니를 자신의 결여를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믿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다. 이 때 종속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분에 대한 결여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어감에 비하여 욕망하는 것 자체를 틀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캉은 이렇듯이 욕망이 발생하는 원인을 주체의 결여에서 찾는다. 욕망의 대상이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는 실체계를 향하기 때문에 욕망이 지속된다는 욕망 이론은 욕망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교육과 상반된 주장으로 욕망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⁶⁾ 자연적인 욕망의 지속은 인용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욕망의 발생과 억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인 상황과 연계된다. 이러한 욕망의 지속 과정에서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타자의 욕망에 병합되게 되는 것이다.

상상계와 상징계의 변증법적인 연결은 욕망을 남기게 된다. 이를 라캉의 욕망 이론에 반영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와 연결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유아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증상은 유아기를 벗어나 남근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작용되는 것이 거세 콤플렉스이다.⁷⁾ 여기에서도 욕망은 여전히 남게 된다. 주체는 대상을 남근으로 믿고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키지만 타자가 남근이 아닌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코 자신이 타자의 남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욕망이 지속되는 것이다.⁸⁾

5) 노상우, 진상덕,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주체형성과정과 교육학적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 한독교육학회, 2014, 72면.

6) 김지연, 「자크 라캉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교원교육』 3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375면.

7) 라캉, 앞의 책, 21면.

8) 라캉, 앞의 책, 22면.

또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생물학적 욕구가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거쳐 언어로 요구를 표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본래의 욕구가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이 발생하게 된다. 욕구가 동물적인 측면이 있다면, 욕망은 욕구와 달리 인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충족되기 어렵다. 따라서 환상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상은 욕망의 불충족으로 인하여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환상 역시 현실에서는 벗어나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욕망을 생성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환상을 지닌 주체는 환상을 자신이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눈이라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이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라캉은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한다.⁹⁾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욕망은 비록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했으나 욕망하는 주체와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주체의 삶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욕망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욕망이 자신의 것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사회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보다는, 이를 받아들여 더 나은 욕망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사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은 이러한 욕망이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통하여 표출되고, 그로 인해 사건이 전개되는 장르이다. 그러나 소설에 인물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세계와 괴리가 있을 만큼 인물의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서사의 전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독자들이 소설의 흐름에 공감할 수도 없게 된다.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들 사이에서 작중 인물들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욕망을 지연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소설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욕망이 지배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의 삶과 소설에서의 삶에서의 비교 지점을 만들어 작품을 통한 감

9)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2005, 249면.

동이나 교훈을 넘어서 현실에서의 주체의 욕망에 대한 관심 또한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인물의 욕망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의 욕망은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서술자는 인물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있어 독자와의 거리를 지키며 직접 서술이 아닌 간접 서술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인물의 욕망을 드러낸다.¹⁰⁾ 이런 간접적인 욕망의 표출 장치는 대상과의 거리를 발생시키며 인물들의 욕망을 혐오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욕망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소설을 통한 교육은 억압 받아 온 욕망의 재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2. 지라르의 욕망과 소설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삼각형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낭만적 거짓’은 타인을 모방할 때 자신의 개성을 포기한다고들 말하는 것, 모방자가 지니는 특징은 폭력이 아니라 군중 행동과 같은 수동성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¹¹⁾ 삼각형의 욕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욕망의 중개자’이다. 욕망의 주체와 욕망하려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욕망의 중개자’가 매개가 된다. 욕망하는 사람을 욕망의 주체라고 부르는 것은 욕망의 근원이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다.¹²⁾ 지라르의 이러한 견해는 라캉이 주체의 욕망으로 표현한 견해와는 상반되지만 라캉이 주체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10)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 이론』, 민음사, 1997, 64면 참조.

11)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문학과 지성사, 2007, 21면.

12)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35~36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라르는 소설 작품들을 중개자와 주체의 거리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중개자와 주체의 거리가 좁은 경우를 내면적 간접화라고 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를 외면적 간접화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중개자와 주체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욕망은 더욱 강렬해진다.¹³⁾ 소설에서의 상황에서 본다면 작중 인물이 주체가 되어 소설 속의 또 다른 작중 인물을 욕망의 중개자로 삼는 경우에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세기와 반비례하는 관계가 된다. 소설의 감상 상황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중개자가 되는 작중인물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모방하는 욕망의 세기가 강렬해지고, 그 거리가 멀수록 반대가 된다.

욕망의 주체는 자신의 중개된 욕망의 모방을 감추면서 다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욕망의 주체는 또 다른 욕망의 중개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개성을 제쳐두고 모방에 빠져들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대상을 욕망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이 확산됨에 따라 구성원 전체가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 모방 욕망의 추종자는 매개자의 존재를 욕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신의 개별성을 획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모방에 빠져들수록 존재의 의미와 개별성을 상실하게 된다.¹⁴⁾

이렇게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이 된 ‘가짜 욕망’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내주지 못한다. 모방은 인간을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욕망의 중개자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게 되면 중개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탐하게 되어 경쟁 상황이

13) 르네 지라르, 김치수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49~50면.

14) 김모세, 앞의 책, 111면.

발생하게 되고 주체의 개성은 상실된다. 주체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욕망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중개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된 ‘가짜 욕망’은 대체로 주체 자신이 순수하게 추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요구받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망되는 대상인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이 확산되면 인용된 글에서처럼 주체나 욕망의 중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 모두가 경쟁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모방된 욕망이 자신에게서 창조된 ‘진짜 욕망’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한다. 즉, 중개자의 존재를 감추고 욕망의 자율성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다.¹⁵⁾ 소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폭로가 종종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욕망의 주체가 욕망의 중개자를 모방하는 장면을 현실과 유사하게 느끼기도 하며, 작중인물들의 욕망마저 그들의 욕망으로 치환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자에게 작중인물은 욕망을 모방하는 독자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인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중개자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모방된 욕망의 평등에 있다. 지라르는 현대 사회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차이의 소멸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같이 신분적 차이가 없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자들의 것들을 욕망할 수 있게 되어 욕망의 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¹⁶⁾ 하지만 타자에 의해 발생된 욕망의 필연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절제하지 못하게 된 욕망이 주체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켜 외부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욕망이 자신의 내부에서 어떠한 방향을 지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욕망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욕망 이론을 바탕으로 「꿈꾸는 인큐베이터」

15) 지라르, 앞의 책, 58면 참조.

16) 김성민, 앞의 글, 247면.

에서의 욕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소설에서의 욕망 :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라캉과 지라르의 욕망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박완서의 소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 이러한 욕망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지라르가 말한 욕망의 중개자의 욕망에 억압된 채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 우위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타인의 욕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다룬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38회 현대 문학상을 수상하여 일정 정도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 작품으로 소설교육의 제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이 작품이 다루어졌지만¹⁷⁾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단원에 수록되어서 작품의 본질인 욕망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욕망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욕망과 중개자를 모방하는 ‘가짜 욕망’의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작품의 본질인 욕망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3.1.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욕망

소설에는 인물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며 이 욕망은 현실에서의 욕망과 유

17) 김윤식 외, 『문학 II』, 천재교육, 2012.

사하게 나타난다. 라캉의 욕망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줄로만 알았던 주체가 현실에서 불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상징계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욕망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의 욕망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질서, 사회적인 용인 혹은 타자와 관련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타자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본인의 욕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주체의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확장된 욕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체의 순수 욕망과는 거리가 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는 남아를 출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지가 배제된 낙태, 즉 여아를 살해 하게 되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주변 인물들은 은근히 이것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주인공은 아들을 낳은 후에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주체가 자신의 순수한 욕망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때의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체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주체 본인의 욕망과 행복만을 따지자면 아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에 큰 문제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 아들 출산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이전에 비하여 누그러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을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격 사유로 삼아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궁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성의 추구가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⁸⁾

“딸만 있는 집이 주위에서 동정 받는 것도 바로 그 점이라는 것쯤 저도 알

18) 김영애, 「한·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주변성’ 연구-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안찬의 ‘굴레’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13면.

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처럼 트인 분도 우리를 딱하게 여기시는걸요. 느이 집에 아들 하나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느냐고요. 그 말씀도 그런 뜻이겠죠. 우리 부부도 그런 고정관념이나 주위의 동정을 저절로 극복한 건 아닙니다. 대(代)란 무엇인가? 대가 후손이면 족하지 왜 반드시 성(姓)이어야 되나? (...) 사람의 최소 단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남녀의 기여도야말로 완전히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아들에 의해서나 딸에 의해서나 자기 핏줄은 면면히 이어진다고 봐야죠. (...)"¹⁹⁾

남자의 말 속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주위에서 동정을 받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그 욕망에 맞게 ‘나’의 욕망을 조절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본인의 순수한 욕망인 것처럼 또 다른 타자인 남자를 설득하기에 이른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영역인 욕망과 대면시키는 이론이자 실천이라고 말한’ 지젝²⁰⁾은 주체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타자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조건 하에서라고 말한다. 타자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 필요의 만족을 위한 필수조건²¹⁾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타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된 만들어진 욕망의 성취는 또 다시 다른 타자에게 더 강력해진 욕망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욕망의 확산으로 우리는 진정한 주체의 욕망에 의한 삶이 아닌, 타자의 욕망을 좇는 삶의 모습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유사하게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타자의 욕망에 기대어 아들을 낳은 주인공인 그녀는, 조카의 유치원에서 만난, 아들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당당한 남자를 오

19) 박완서 외, 『꿈꾸는 인큐베이터』, 『한국 3대 문학상 수상 소설집』 7, 가람기획, 1998, 205면. 이후부터는 작가와 쪽 수만 표시.

20) 김소영, 「상상계·상징계·실재계를 넘나드는 욕망의 양상-〈비우티폴〉과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자〉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학회, 2016, 268면.

21)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도서출판 b, 2007, 142~143면.

히려 거북하게 여긴다. 아들의 존재 유무로 인생의 행복을 가르치 않는 그 남자에게 그녀는 그가 가진 행복이 오히려 ‘거짓 행복이고, 거짓은 깨부셔야 한다는 사명감이 대단한 정의감으로 치뽀’칠 만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기계적인 ‘인큐베이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자신의 욕망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딘가에 유턴 지점이 있겠지, 유턴 지점을 열심히 찾는 것도 아니면서 막연히 그렇게 믿으며 상쾌한 속도를 냈다. 도시와 더불어 내 집 또한 뒤로 뒤로 멀어져가는 기분 또한 상쾌했다.(박완서, 222면.)

여기에서 ‘도시’와 ‘내 집’은 타자의 욕망에 갇힌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줄로 알고 믿고 따랐던 삶은 결국 타자의 욕망에 갇힌 삶이었고, 그 타자의 욕망들로부터 ‘뒤로 뒤로 멀어져’ 갈수록 주인공은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이것은 굳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와만 관련짓지 않더라도 설명 가능하다. 이는 주체가 순수 욕망인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 욕망이 본래 타자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라캉이 말한 상상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절대적으로 합일된 관계로 서로의 결여를 채우며, 아이는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계는 현실계의 원칙으로 표상되는 아버지가 등장하며 파괴되고, 사회구조 속에서 상징계로 편입되게 된다. 여기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실제로는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좌절하게 되지만 아버지를 남근의 소유자로 인정하며 아버지의 질서 속에 편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아들 생각만 하면 나는 겁날 게 없었다.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 후천적인 남성 성기였다.(박완서, 214면.)

위의 인용된 부분에서의 ‘남성 성기’는 라캉의 이론에서와 유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을 낳는 행위 자체가 실제 주체의 목표에 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주체는 그 행위, 혹은 아들을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주체에 의해 순수하게 발생된 욕망마저 아님을 깨닫게 된다면, 욕망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갈 필요와 목적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주체에게 의미 있게 여겨졌던 남근의 실체가 허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주체는 욕망이 추구하는 목표에의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허무 혹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를 찾기 위해 욕망의 영역에서는 욕망을 억제해야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욕망의 재인식 과정 이후에 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중개자를 모방하는 ‘가짜 욕망’

「꿈꾸는 인큐베이터」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도 드러나지만 타자를 모방하려는 ‘가짜 욕망’의 모습도 드러난다. 욕망의 주체는 욕망의 대상을 자발적으로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욕망은 욕망의 중개자라는 ‘타자’에 의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²²⁾ 많은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 혹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자발적인 욕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의 중개자에 의해 모방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욕망의 중개자를 모방하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일본 갔다올 때 그걸 사온 남편도 남이 가진 것은 일단은 다 갖추고 봐야 한

22) 유흥렬, 「문학교육에서 욕망의 이해에 대한 연구-욕망의 중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6면.

다는 소유욕 때문이지 그 방면에 취미가 있어서 장만 한 건 아니었다.(박완서, 182면.)

인용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의 남편은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 고가의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비디오카메라는 주인공의 집에서 보다 오히려 주인공 동생네가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품의 필요와 사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하는 행위는 상류층을 욕망의 대상으로 둔 많은 중개인들을 모방하며 자신의 모방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생산의 사회에서 소비의 사회로 변모한 현대의 자본주의 문화에서 소비는 상위 계급을 욕망하는 욕망의 중개인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명품’을 사 모으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구매한 상품을 통해 자신의 현실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지위를 뛰어넘고자 하는, 혹은 망각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다.²³⁾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을 욕망의 대상으로 두고, 그들의 행위나 소비를 모방한다고 해도 실제로 상류층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하는 욕망의 주체들은 서로의 또 다른 욕망의 중개자가 되며, 각자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계층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에는 소비의 욕망 외에도 자녀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욕망으로 인해 경쟁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선착순으로 뽑는 정원 안에 들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게 그 유치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 무얼 어떻게 잘 가르친다는 건지 그 실속보다는 줄을 서야 한다는 소문 때문에 자꾸만 더 유명해져서, 내년에는 필경 그 전날 밤부터 유치원 문간에서 오리털 이불을 뒤집어쓰고 새지 않으면 뽑히기 어려울 거라고들 했다. (...) 나는 서울대학 학부모라도 된 것처럼 한껏 으스대는 마음으로 거만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아담한 단층건물로 다가갔다.(박완서, 184면.)

23) 권용선,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4, 71면.

인용된 모습은 욕망의 주체가 중개자들에 의해 의존적으로 욕망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줄을 서서 기다려 음식을 먹고, 줄을 서서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타자가 그 대상을 욕망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 주체는 그 대상을 자신의 욕망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²⁴⁾ 그리고 나서부터 타자인 중개자의 역할은 희미해지게 된다. 하지만 욕망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모방하는 것은 나보다 앞서 줄을 서고 있는 중개자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욕망 주체가 중개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욕망의 대상인 어머니를 욕망한다고 보는 르네 지라르 식의 ‘비자발적 욕망’으로 볼 수 있으며 욕망 주체의 모방을 중시²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욕망 주체는 자신이 욕망한 것들을 성찰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개자에 의해 의존적으로 욕망을 모방하게 되는 주체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타자’의 욕망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욕망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의 의의

현대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나’와 타인이 집단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도,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의 발견과, 내가 아닌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의 욕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 살면서도,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간혀 다양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추며, 혹은 욕망을 모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소설에는 인물들의 욕망이 드러나고, 이러한 양상은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소설을 통하여 욕

24) 유흥렬, 앞의 글, 46면.

25) 김진식, 앞의 글, 40면.

망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나’와 ‘타인’의 욕망을 분리시켜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4.1. 공감을 통한 욕망의 재인식

소설에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유발하는 소설의 요소로서의 인물의 역할에서 나아가 현실에서의 욕망을 지닌 독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자는 소설의 인물을 통해 자신이 지닌 욕망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에게 공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욕망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라캉의 욕망에 대한 견해가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수용됨으로써 공감을 통해 욕망을 재인식 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욕망은 주체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속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욕망을 인정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은 욕망을 억제해야 할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 발생의 속성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던 욕망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욕망을 재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소평가되었던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낸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 보다는 욕망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욕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라캉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구 충족을 위해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언어를 통해 욕구가 타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욕구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결여를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남게 된 결여는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²⁶⁾ 욕구와 요구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26) 진상덕, 노상우, 앞의 글, 160~161면 참조.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소설에는 욕망 표출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중인물들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학습자들은 그들의 욕망에 깊이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나’와 같은, 하지만 ‘나’와는 다른 타자의 욕망을 이해하며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작품에 드러나 있는 작중인물들의 욕망을 통해 ‘나’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이해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자적(對者的)으로 형성되며, 타자를 통해 ‘나’를 인식한다고 할 때, 문학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²⁷⁾ 작품을 통하여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는 정체성 탐구의 교육’²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이해에 끊임없이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문학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자신의 욕망이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 억압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더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갈등의 상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욕망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소설에서는 인물 간의 욕망 충돌 혹은 인물 내부에서의 욕망 충돌이 드러난다. 또한 소설은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욕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학습자는 인물의 욕망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함과

27) 박수정, 「소설 교육을 통한 ‘자기 이해’의 확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면.

28) 최인자,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 역락, 2008, 35면.

동시에 작중인물들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이 단순히 절제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발생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욕망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욕망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

작품을 통한 소설교육이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욕망을 지닌 작중인물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나와 유사한 욕망을 지닌 다른 또래 독자까지도 가정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슷한 욕망을 지닌 또래 독자와의 욕망의 공유는 학습자에게 내재된 욕망의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달리하면, 욕망의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욕망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는 사회의 요구와 관련된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욕망을 중심으로 소설교육이 진행되면 인물과 독자, 독자와 독자,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독자 등의 다양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소설교육의 장에서 독자 사고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다.

4.2. 공감에서 벗어난 욕망의 분리와 재설정

앞 절에서는 공감을 통한 욕망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탈(脫)공감 혹은 반(反)공감을 통한 욕망의 분리와 재설정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칫 보면 서로 배치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감을 통한 욕망의 재인식과 공감에서 벗어난 욕망의 분리와는 욕망을 지닌 인물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나’의 욕망에 대한 발전적 이해 과정으로서 상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욕망을 지닌 인물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욕망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욕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과 욕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학습자들은 무

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욕망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욕망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²⁹⁾은 역량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교육을 통해 인물과 학습자의 욕망을 분리하는 과정은 국어과 교과 역량 중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인물의 욕망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재료로 하여 주체적으로 욕망을 바라보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의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독창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욕망의 분리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재설정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는 대체로 자신의 주변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이는 지라르의 표현으로 내면적 간접화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 교사, 동료 학습자, 그리고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설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공감하거나 동일시 할 수 있는 작품 내에서의 작중인물을 들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개 그들의 부모, 혹은 교사의 기대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요받기도 하고, 영향력이 강한 동료 학습자를 모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돈을 잘 벌고자 하는 학습자 자신의 욕망은 실은 부모들의 욕망과 동일시된 욕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향력 있는 동료 학습자의 소유물 혹은 사회가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소비문화 패턴에도 학습자들은 쉽게 노출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성된 욕망들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욕망하는,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

29)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2015, 10면.

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표화된, 나열된 욕망들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문학교육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욕망에 종속된 삶을 작품의 인물들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욕망에 대한 내적 성찰 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인 타인의 욕망과 학습자인 '나'의 욕망의 분리는 인물과의 정서적 거리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인물과의 공감을 통한 만족과 달리 욕망을 인정하는 인물과의 분리를 통한 욕망의 재설정 과정은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자들은 타인의 욕망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욕망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청소년기를 다른 사람의 욕망에 따라 지내다보면, 타인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이 일치되어 대다수가 꿈꾸는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청소년기에 분리되지 못한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 탐색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소설 속의 작중인물들이 타인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일치시킨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욕망에 대해 재정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혹은 학습자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작중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타자의 욕망과 분리된 건강한 욕망 달성을 이룩하는 작품을 통하여 그에게 공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 표출과 욕망 달성이란 청소년기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는 타인의 욕망에서 분리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구분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학습자 본인의 욕망의 고유성을 찾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 욕망을 추구하는 방안을 스스로 탐색해 보며, 욕망의 방향을 재검토하는 과정들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욕망과 관련된 또 다른 동기 이론인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어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점차 상위 욕구로 나아가게 된

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이고,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3단계와 4단계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따라서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에 도달해야 하고, 이는 매슬로우의 4단계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분리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현실에서는 내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본래부터 내가 지닌 욕망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것이 타인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 그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소설에는 현실에서의 욕망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닮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욕망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욕망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소설 속의 인물처럼, 혹은 작중인물과는 다르게 자신이 생활에서 모방한 욕망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나열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모방한 욕망들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공부에 열중하는 많은 학습자들의 최대 목표라는 것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고,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뚜렷한 성찰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나의 꿈 찾기’, ‘진로 탐색’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상담부

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습자들은 여전히 ‘나’의 욕망이 아닌 부모님, 혹은 사회의 기준에 따른 선택을 함으로써 타인의 욕망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청소년기에 ‘나’의 욕망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욕망하는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생활하게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미성숙한 성인’들이 결국 성인기에 들어 다시 ‘나’의 진짜 욕망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경우를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나’의 욕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청소년기에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욕망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망을 재인식하고, 욕망의 근원을 아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분리하여 ‘나’를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작중인물의 욕망이 현실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소설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소설을 통해 작중인물이 지니는 욕망, 인물 간의 욕망 충돌 과정과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인물의 욕망의 근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나’의 욕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욕망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들은 ‘가짜 욕망’에서 벗어나 ‘나’의 욕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욕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 가능한 사회가 될 때 학습자들은 다원화된 시대에서 자신의 색깔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방된 욕망이 아닌 학습자 본연의 순수 욕망의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욕망 이론을 통하여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고, 욕망을 중심으로 한 소설교육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소설교육의 방안 모색은 추후 논의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2015.
김윤식 외, 『문학 II』, 천재교육, 2012.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한국 3대 문학상 수상 소설집』 7, 가람기획, 1998.

2. 논저

- 권용선,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4, 71면.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 이론』, 민음사, 1997, 64면.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35~36면.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석,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철학과 현상학연구』 29, 한국현상학회, 2006.
김성민, 「인간의 욕망과 모방-르네 지라르의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47, 한국실천신학회, 2015.
김소영, 「상상계·상징계·실재계를 넘나드는 욕망의 양상-〈비우티풀〉과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자〉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학회, 2016, 268면.
김영애, 「한·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주변성’ 연구-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와 안찬의 ‘굴레’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13면.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김지연, 「자크 라캉 정신분석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교원교육』 31,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5, 375면.
-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이론과 새로운 심리학」, 『불어불문학연구』 107, 한국불어불문학회, 2016, 40면.
- 노상우, 진상덕,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주체형성과정과 교육학적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 한독교육학회, 2014, 72면.
- 마상룡, 신창호,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인격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자아와 주체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5, 한국인격교육학회, 2011.
- 박수정, 「소설 교육을 통한 ‘자기 이해’의 확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면.
- 박청호, 「욕망의 서사 연구-김승옥, 신경숙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문학과 지성사, 2007, 21면.
- 르네 지라르, 김치수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49~50면.
-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도서출판 b, 2007, 142~143면.
- 오현중, 「조세희 소설의 욕망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유홍렬, 「문학교육에서 욕망의 이해에 대한 연구-욕망의 중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6~46면.
- 이동성, 「라캉의 구조주의 욕망이론」, 『동서언론』 9, 동서언론연구소, 2005.
-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2005, 249면.
- 자크 라캉, 민승기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5, 21~46면.
- 진상덕, 「인간의 주체화 과정과 욕망-라캉의 정신분석적 교육철학 탐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진상덕, 노상우,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욕망의 교육학적 함의」, 『교육 철학』 37, 한국교육철학회, 2015, 160~161면.

최인자,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 역락, 2008, 35면.

한순미, 「최명익 소설의 주체, 타자, 욕망에 관한 연구-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Abstracts】

An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Desire in Novel Education

Yu Ri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desire in novel education. Desire exists in human life. It was considered during the pre-modern times that desire was a thing to be controlled, but desire should be considered as a natural thing rather than just trying to control it because it inevitably occurs in human life and is made to function properly in our lives. In this paper, the purpose is to understand desire focusing on two major theories: Jacques Lacan's desire theory, in which he saw desire from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René Girard's desire that occurred by imitating others' desire. In addition, based on these desire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in which patterns desire is revealed in novels, centering on Park Wan-Seo's 「The Dreaming Incubator」, from two different desire perspectives: desire that was made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desire that was made by imitating a mediator.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meaning of desire in terms of novel education by exploring the educational meaning of desire in novel education from two desire perspectives: a new understanding process of desire and a separation process of desire into other's and my own desire.

Key words : desire, novel education, other, new understanding of desire, mimetic desire

이 논문은 2017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